

기도

1.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사망의 고통에 근심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2.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요한 2서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이를 부인하는 자들의 이단성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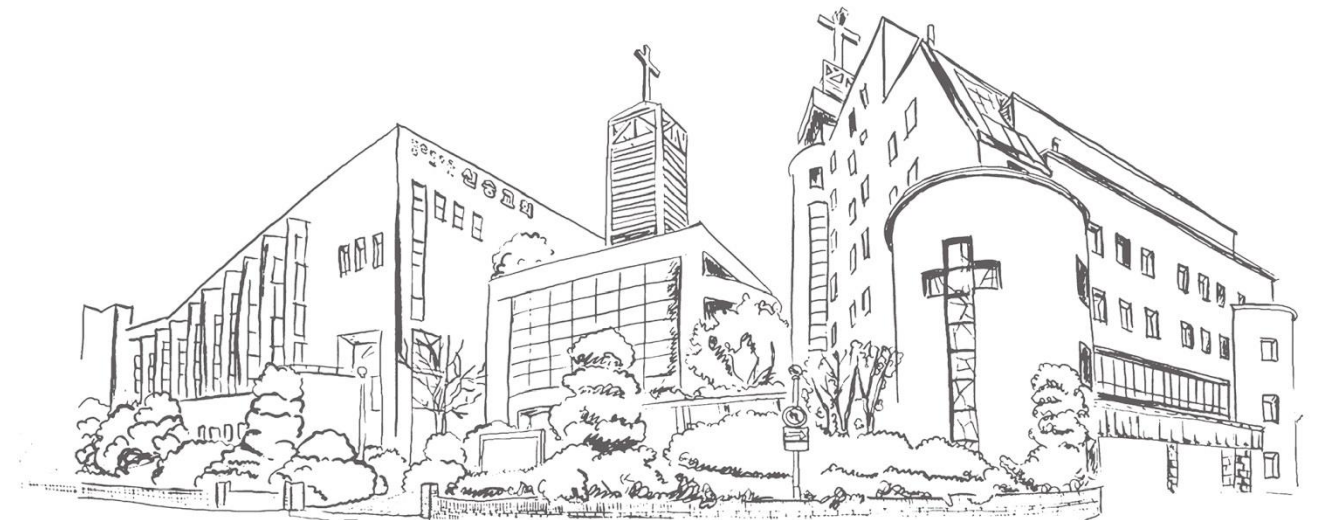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2년 4월 17일

생명에 삼켜지는 삶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생명에 삼켜지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7장, 161장)

본문은 사도바울이 육신의 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막 집인 육신은 언젠가 죽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삼켜진바 되어 성령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1~4절).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십니다(1절). 당시 고린도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영혼은 불멸해도, 육신은 영원히 소멸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믿는 우리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장막 집과 같이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1절). 하늘의 처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거하게 될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3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할 때에 벗은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15:41).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만큼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부활도 더 장성해지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탄식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2절). 우리의 죄와 부패성과 연함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심령이 살아나도록 역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4절). 언젠가 반드시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주를 위해 쓰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때 생명에 삼킨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리고, 주를 위해 내 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생명에 삼킨바 되어 살도록 주장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보증은 변치 않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주시고, 감화해주시고, 강동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했습니다(엡3:16).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게도 하시고, 때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으로 역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터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에 삼켜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부활이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강건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생명에 삼켜지지 바랍니다.

